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 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레위기 22:32

교회는 하나님의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무엇으로 기록되는가.

교회의 역사는 건물의 크기나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역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진 기도, 이름 없이 섬긴 손길, 서로를 품고 기다려 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려 했던 믿음의 발자국들로 기록됩니다.

38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시작은 작고 연약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며,
지역과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회는 기쁨의 날도 지나왔고, 어려움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도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 모든 시간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립기념일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교회로 세워졌는지 다시 묻는 날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새롭게 붙드는 날입니다.

교회는 한 세대의 헌신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의 눈물과 기도 위에 오늘의 세대가 서고, 오늘의 세대가 다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 줄 때
교회는 계속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창립 38주년은 지나온 38년을 감사하는 자리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더 따뜻한 교회, 더 낮아지는 교회, 더 기도하는 교회, 더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8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교구 - 한 세대를 향한 교회의 목양적 응답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아, 지역이 아닌 연령대로 편성된 첫 번째 교구인 8교구의 역사를 『주님의교회 25년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교구 편성을 넘어 8교구 탄생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한 세대를 품고 세워 가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8교구의 의미

주님의교회 8교구의 역사는 교회가 30대를 어떻게 바라보아 왔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8교구는 지역을 기준으로 편성된 기존 교구와 달리, 연령과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30대 성도들을 단순히 기존 장년 교구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형편과 신앙적 필요를 별도로 살피려는 교회의 목양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30Cup 사역 시작

2004년은 20~30대 새가족 등록이 두드러졌던 해였습니다. 새로 등록한 전체 새가족 가운데 20~30대가 절반을 차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30대를 향한 관심도 깊어졌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미혼과 기혼을 포함한 30대 성도가 1,000여 명에 이르렀고, 교회는 이들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별도의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 기존 청년부서를 개편하여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30Cup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30Cup은 ‘Caring for Unreached People’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교회 안에서 목양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려는 비전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나오는 ‘컵’이라는 표현처럼, 작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30대가 직장, 결혼, 가정, 육아, 자기계발, 경제적 독립 등 여러 현실적 과제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놓치기 쉬운 세대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30Cup 사역은 이들이 삶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직면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청년3부와 30Cup, 그리고 30plus

이후 교회는 30대 사역을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끝내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구조를 조정해 갔습니다. 2009년에는 청년부가 1·2·3부로 개편되면서 미혼 30대는 청년3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안의 30대는 미혼 30대 중심의 청년3부와, 30대 부부 및 일부 미혼 성도로 구성된 30Cup으로 나뉘어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를 다시 20plus와 30plus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청년 1·2부는 20plus로, 청년3부와 30Cup은 30plus로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20대는 젊은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미혼과 기혼을 포함한 30대는 30plus로 묶

어 장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4부 예배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30대의 현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당시 교회에 등록된 30대 성도는 1,000명이 넘었지만, 기존 청년3부나 30Cup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교회는 30대가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4부 예배라는 별도의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대 초반과 후반, 30대 미혼자와 기혼자의 관심사와 삶의 과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생애주기와 고민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였습니다.

젊은부부교구의 탄생

2012년에는 30plus의 기혼자들이 젊은부부교구로 개편되면서, 교육부서가 아닌 목양사역위원회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30대 기혼 성도들을 단순히 청년부의 연장선에 두지 않고, 장년 목양의 한 축으로 세우려는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겨자씨 모임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20~30대 부부들을 한데 모아, 집중적인 신앙적 돌봄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이후 2030 젊은부부교구는 10교구를 거쳐 현재의 8교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본 주님의교회의 30대 이해와 노력

이러한 역사를 통해 볼 때, 주님의교회는 30대를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세대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30대는 신앙적으로는 청년의 열정과 장년의 책임 사이에서 서 있고, 삶의 현실에서는 직장, 결혼, 출산, 육아, 경제적 독립, 관계의 변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신앙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 정착하며, 삶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역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8교구의 출발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를 향한 교회의 목양적 응답이었습니다. 30대를 향한 주님의교회의 관심은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행정적 대응을 넘어, 그들이 처한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고자 한 목양적 돌봄의 표현이었습니다.

청년3부와 30Cup에서 30plus, 그리고 젊은부부교구와 8교구로 이어지는 흐름은 주님의교회가 30대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자, 지금 이 자리에서 세심하게 돌보고 세워야 할 믿음의 동역자로 보아 왔음을 보여 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한 세대를 품어 온 8교구의 걸음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목양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글함글**



믿음의 어버이들과 함께한 은혜의 예배

오늘은 시니어 교구와 청년부의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이었다. 설교 시간 전에 시니어 교구 분들이 “청년의 기도”라는 특송을 해주셨고, 음료와 빵을 준비해주셨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평소랑 큰 차이가 있는 예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배 전 준비 모임 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평소랑은 무언가 많이 다름이 느껴졌다. 예배 준비 모임 때 그 정도로 마음이 담긴 절절한 기도를 해보는 건 처음이었고, 특송을 들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했다. 찬양 시간에는 가슴을 치게 되는 울림이 있었고, 설교 시간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나도 모르게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적적했다.

셀 모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고, 그 나눔도 깊이가 달랐으며, 각자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교회 일정이 끝나고는 청년부 친구와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는 오늘처럼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크게 울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 라고,오늘의 예배는 느껴지는 무게가 많이 달랐다는 간증을 해주었다.

그때 확실해졌다.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의 크기가 다른 건 나뿐만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 글에 다 담진 못하겠지만 더 신기하고 은혜로운 일들도 여럿 있었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손길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더없이 감사하게 된다. 오늘을 위해 찬양을 준비해주시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마음을 쓰며 기도해주셨을 시니어 교구 분들을 생각하니 무언가 마음이 아련해지기도 했다. 혈연은 아닐지라도 주님의교회가 이곳까지 올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고 기도해주신 신앙의 어버이들. 더 나아가 한국의 기독교가 유지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게 신앙이라는 귀한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어버이들.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오늘의 예배는, 더 나아가 오늘의 하루는 더욱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주님의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도, 귀한 시간들일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기도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어버이들께, 더없이 감사할 수 있는 하루였다.

서영재 청년 / 청년부 회계



세대를 잇는 사랑의 찬양과 친교

우리 교회 시니어 교구에서는 6월 7일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여 세대를 잇는 뜻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세대 간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니어 성도들은 청년들과 나란히 앉아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니어 교구에서는 3주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며, 특히 찬양은 토요일과 주일에도 별도 시간을 내어 연습하는 등 그 열정과 참여 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아들 내지는 손자뻘 앞이지만 머플러까지 두르고 올린 찬양은 시니어의 건재함을 과시하기에 충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성철 목사님의 말씀 ‘아주 특별한 계명’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 중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만 지킬 수 있는 조건부 계명이라는 데 공감하며, 시니어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격려하며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결단 찬양으로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숙연해지고 세대 공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찬양하는 청년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시니어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으며, 청년들 또한 인생의 선배이자 믿음의 본향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축복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시니어 성도는 “청년들의 밝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한 청년은 “교회의 어르신들이 가까이 계셔서 든든했고, 큰 응원을 받은 느낌에 감동했다.”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친교가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선재 안수집사 / 1교구

은혜로 걸은 제주, 감사로 남은 순례

2026년 5월 21일~23일, 2박 3일간 에바다 제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웠던 5월의 제주도에서 에바다 교우들과 함께 웃고 걷고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부활의 기쁨과 위로를 맞았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소감과 기도를 통해 그 은혜의 감동을 대신합니다.

김보람 목사

제주도 성지순례 여행을 두 번째로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주님의교회에서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행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정 속에 안전과 기쁨을 주시고 은혜로운 추억으로 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을 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번 제주도 2박 3일 성지순례 여행이 정말 즐겁고 매우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하고 순례하며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에바다 농아부 친구들과 함께하며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웃고 교제하며 받은 은혜와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곳을 구경하면서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

으며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소중한 시간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에바다 농아부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2박 3일 성지순례여행 동안 머물렀던 리조트도 매우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깨끗한 객실과 아름다운 주변 풍경 덕분에 마음까지 편안해졌고, 하루 일정을 마친 뒤 편하게 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감사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배운환 목사님, 김보람 목사님, 김은선 목사님, 김용규 장로님, 서옥숙 권사님, 탁동원 집사님께서 제주도 성지순례여행 동안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해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행이 되도록 수고해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건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바다 농아부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웃으며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며 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에바다 농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미수 집사

제주 여행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푸른 바다와 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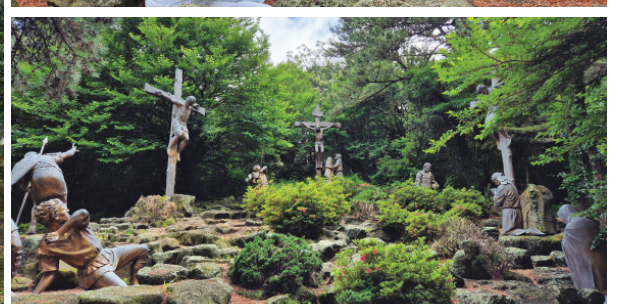
김정환 집사

에바다 성지순례여행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경식 집사

아름다운 제주도 성지순례, 특히 성이시돌 목장들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엄청 많이 아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순례여행 2박 3일 동안이 마치 에덴동산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이경은 집사



식담나무와 함께한 광릉 국립수목원 나들이

지난 6월 6일, 식담나무 여름영성수련회가 포천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식담나무 식구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쉽지 않게 예약한 서울 장애인버스를 타고 포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애인버스에는 운전기사님과 이동을 도와주시는 분이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수목원에 도착한 후에는 단체사진을 찍고, 울창한 수목원 그늘길을 따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신 두 분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까지 함께한 초여름의 길목, 6월의 수목원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습도 없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바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껏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삼삼오오 사진도 찍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오늘 하루의 명약과도 같았습니다. 수목원 나들이를 마친 뒤에는 함께 음료를 마시며, 식담나무 식구들이 오늘과 같은 기운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마다 늘 건강하게 지내기를 서로 약속했습니다.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아 장거리 나들이가 부담될 수 있었지만, 이번 나들이는 여러 도움의 손길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음료와 간식을 나눈 대형 빵집에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식담나무 식구들의 소감도 나눕니다.

신형섭 장로

지금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 행복했던 사진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모두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참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배운환 목사님, 김보람 목사님, 좋은 추억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 하나부터 끝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함께 동행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은희 집사 / 식담나무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식담나무 여행에 함께 다녀온 김태은입니다.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했음에도 수목원에서부터 카페까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은 청년 / 식담나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올해 초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하며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어와나였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두 자녀 모두 어와나에 등록이 되었고, 덕분에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등록이 확정된 이후, '어와나 보낸 김에, 아름다운 부모학교'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아내가 저에게 함께 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아내의 권유에 따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교육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던 '기독교' 학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은 주로 아내의 몫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도록 지켜보는 것, 그리고 아내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껴질 때 한 마디 거드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잘 키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독교학부모 교육은 그런 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교육 현실, 특히 경쟁과 순위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제가 받은 상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얻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을 함께 책임

지는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학교 안에 스며든 여러 우상들 속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자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늘 애쓰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저 스스로도 '기독교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규 성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붙은 복음의 능력

주님의교회 중보기도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 3월에 발대식을 가진 이래, 현재 총 30개 팀 300여 명의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회 6층 릴레이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카드(긴급, 일반, 자녀, 영혼 구원, 나라와 교회, 하나원, 선교 등)와 주일예배(장년, 유아청청, EM, 사랑나무, 에바다, 싯딤나무, 너나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부는 거룩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에서, 가정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입니다.

푸르름이 짙어 가는 6월 첫째 주 목요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중보기도부 특별월례회가 중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부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위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르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 속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이 곳곳에서 넘쳐났습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특별강사로 오신 송준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보면 산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보면 산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덮어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면 산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 내용 안에서 프로그램들도 의미가 있고,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더욱 뜨겁게 붙들 듯 우리 심령마다 일으켜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미희 권사 / 중보기도부 부장

두메산골에서 이어지는 40년 목회와 섬김

농어촌선교부에서 봉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봉조교회는 오갑식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이던 1986년, 24살 때 고향 곡성으로 내려오셔서 본가 땅에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40년째 목회하고 계신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향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동네 어른들을 잘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늘 동네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고자 애쓰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을 고향에서 헌신하신 삶에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2007년부터는 읍내에 있는 150명 규모의 시설에서 매주 정기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가시는 것을 보시며, 목사님께서서는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남원시의 다사랑교회와 효사랑요양병원을 개척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심방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두메산골이지만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며, 매주 사모님과 함께 심방 사역을 이어 오고 계십니다.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 대화 상대

도 부족하고, 재정도 넉넉지 않은 가운데 늘 섬겨야 하기에 힘들 때도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최고의 황금어장이자 복음의 사각지대인 불우시설과 요양병원 사역, 그리고 봉조교회를 위해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정이 허락되신다면 후원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갑식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곡성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미리 전화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천정희 권사 / 농어촌선교부 부장



- 봉조교회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500348-02-004940
- 오갑식 목사 010-3627-8519

가랑비 속에 함께한 하늘꿈교회 방문의 은혜

5월 20일 정신학원과 우성 아파트 사잇길 골목을 조용히 적셔주는 가랑비 내리는 아침에, 우리 회원 24명과 이태욱 목사님이 이룸도예쁜 강원도 동해시 “하늘꿈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31인승 버스에 긴 세월을 버텨온 연약한 몸들을 맡겼다. 하늘꿈교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수고하셨던 신화식 목사님이 담임으로 시무하고 계시는 교회이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8시 58분에 목사님의 출발 기도 후에 버스는 빗길을 조심스레 출발하였다. 즐겁고 설레는 맘으로 평소 같이하고 싶었던 분들과 짝지어 앉아 삶의 지혜들이 가득한 이야기보따리들을 풀어 놓기 시작하였다. 섬기는 은사가 1등급인 스텝들이 전날 준비한 약식, 다과, 컵과일이 이야기에 매인 목들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못다한 이야기들이 이렇게도 많았을까? 친절할 기사분이 틀어준 복음찬양도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로 이야기 삼매경에 빠졌다. 어느새 버스는 한 시간 반을 달려 홍천휴게소에 도착하여, 우리들의 입도 쉬게 되었다.

행여 빗길에 다칠까 봐 버스에서 제일 먼저 내려 우산을 받쳐 들고 한 분 한 분 버스 계단을 잘 내리도록 손잡아 주던 이태욱 목사님의 손길이 듬직한 손자 손처럼 느껴졌다. 버스는 잠시 휴식 후 1시간 반을 달려 12시쯤 목적지 교회에 도착하였다.

신화식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이 반갑게 맞아 주셨고, 과일과 호박식혜로 우리들을 대접해 주셨다. 곧이어 아담하고 환한 교회에서 방문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태욱 목사님의 예배 인도, 최정숙 회장의 기도, 김영아 권사의 “아버지”라는 세련되고 품위 있는 위십,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랑”(갈 6:2)이라는 제목의 신화식 목사님의 설교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말씀과 연관이 있는 노사연의 “바람”을 기타 반주와 함께 부르신 신 목사님의 열창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이어서 김분자 권사의 1여전도회원들의 회비로 준비한 200만 원의 후원

금 전달이 있었고 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하늘꿈교회와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린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잘 차려진 씬밥으로 점심식사 맛있게 먹은 후, 수만 송이 장미꽃들이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는 장미정원으로 형형색색 우산을 받고 즐겁게 산책을 하였다. 소녀시대로 돌아간 노 권사님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장미꽃들 사이에서 예쁜 포즈로 사진들을 찍었다. 빗속의 알록달록 우산들도 한층 운치를 더해주었다. 사모님이 안내해 준 추암 해변에서는 TV에서 종종 보았던 촛대바위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겼고, 무섭지만 삼삼오오 출렁다리도 갔다 오고 비 오는 모래사장도 걸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예정보다 늦게 오후 4시에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비에 젖어 감기들까 봐 옷들을 말리라고 히터를 틀어준 기사님의 배려가 고마웠다. 7시쯤 교회에 도착하여 해산하였다. 신 목사님 말씀 중에, 13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의교회와 개별 교우 몇 분이 건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처음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청소년부까지 포함하여 10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신화식 목사님 내외분의 열정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리라 믿으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문춘자 권사 / 1여전도회

상례부 워크숍, 함께 풀어주는 사명을 다시 품다

지난 6월 12일(금), 상례부는 「함께 풀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함께하는 상례부원들 간의 소통과 상례 사역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그동안의 섬김을 격려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례부는 성도 가정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의 곁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을 통해 장례 소식을 접하면 상례부 운영진은 즉시 부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해당 일정에 차량 봉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우리 교회 주관의 경우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화장 예배와 다른 교회 주관의 경우 위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때로는 장지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상례부의 역할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장례 절차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 홀로 서 있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말보다 함께 있음으로, 위로보다 동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상례부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사역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서로의 삶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사역 현장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상례부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최근의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감동과 공감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상례부를 담당하는 배운환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봉사의 이유」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봉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서로를 섬기는 매력적인 삶이야말로 모든 봉사의 출발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참석한

부원들에게는 상례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통로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김용규 장로님의 진행으로 상례부의 역할과 사역, 그리고 이번엔 제작된 「조문 및 장례예배 동행 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장례 소식을 접한 후 준비 과정부터 조문 예절, 장례예배(위로예배·입관예배·천국환송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 귀가 후 유의사항까지 실제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례부의 역할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식탁교제에서는 웃음과 대화 속에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던 동역자들이 이날만큼은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상례부는 함께 섬길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슬픔을 당한 성도의 곁에 함께 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길 수 있는 분, 장례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로 동행할 수 있는 분, 누군가의 아픔 곁에 조용히 머물러 줄 수 있는 분이 라면 누구나 상례부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9

상례부는 오늘도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교회의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민기 안수집사 / 상례부



구획	팀장	내용	대상	담당부서	봉사인원	오전 봉사자 10:00-12:30	오후 봉사자 12:30-15:00
플레이존	윤상현	챌린지바운스	어린이	남선교회	4	홍운식 김길동	최재규 김복수
		에어바운스(중형1)			6	박인호 임정식	이형구 전선재 나관주 임정욱
		에어바운스(중형2)			6	이수룡 박용좌	이명기 박용좌 이정준 김홍성
		에어바운스(중형3)			6	이성호 이정식	김광수 서명기 김성배 이성균
		슬라이딩 바운스			7	배선태 이정우 지형민	지형민 조영진 유정식 지형민
		어린이바이킹1			6	성낙훈 박범석	이성래 김국호 이신형 이정우
		어린이바이킹2			6	위승훈 함기석	이성균 강관일 함기석
		유로번지			청년부/남선교회	3	정예은
		다람쥐통	3	정성원		이익배 최오섭	
		우주선비행선	미취학 어린이	청년부	3	홍다윤 홍진희	김동욱
		영아용 키즈라이더(4대)		청소년숲	3	양재도 임성훈	임성훈 최윤희
		영아용 에어바운스(실내)		유아숲	6	김경진 오점덕 추미선 허가화	김지연 남초롱
		전동기차			4	설연우 어진원 김은숙 조규완	
		두더지 해머 농구대(게임기)	전교인	초등2부	2	조용민	김광희
	함혜련 포토존	4		손지원 함혜련	김순희 조민호		
	김계원 레트로존		청소년숲	5	김계원 박유진 오성민 이동길 장종신 주찬양		
교육부스존	강요한	유유청청+가정사역원	전교인	교역자	3	강요한 김은선 이영원	
패밀리존	이윤경	종이피리/키링 만들기	전교인	유아부/아기정원	6	송진경 이선민 이선유	김가현 장신영 조수연
		요술 팔찌 만들기		아기부	2	은정아	유가람
		비치백 꾸미기		영아부	4	박수희 신현정 허소정	박수희
		색칠풍선 / 부채 만들기		유아숲1부	5	김은숙 송준영 염기영 전기옥	조은경
		썸캡 만들기		유치부/커비스	4	우지민 정세연	강주영 이영선
		Make It(디폼블럭)		유년부	8	권택정 송영민 윤예지 임미정 임정욱	김나현 김주형 송태헌
		Play It(게임)		초등1부	8	고상민 목윤영 양해은 이선우 이현숙 임광희 황유정	송헌지 이선우
		Grip It(그립톡)		소년부	12	신지원 이현준 정대한 주현규 함채미	강민채 김상아 김소진 김소현 손양준 이은주 최서현
		Save It(달고나)		EM	5	김영인 김지은 김혜인 양수미 이윤정	김지은 김혜인 이윤정
		Take It(풍선)		어와나	6	김지아 송재룡 이재웅 이진원	이정우 조영은
공연존	이상훈	가스펠 버블쇼	전교인	전교인	1	비상대기조	
푸드존	신호철	푸드트럭1 (다코야키와오코노미야키)	전교인	소년1부	4	박성일 채미애	윤경자 정대한
		푸드트럭2(소떡소떡)		유년1부	2	김경희	노정민
		아이스크림 및 음료		유년2부	6	성순현 윤진영 이경아	김예서 문다는 이지윤
		팝콘1		청소년숲	5	신미향 박형란 손상수	손상수 송숙희 임미희
		팝콘2			8	김정래 신기숙 이미경	성낙훈 심예지 유혜림 정하은 홍승길
		소프트아이스크림1			7	김현미 유지은 최명철	김옥희 김지수 이경희 정세민
		소프트아이스크림2			9	정희봉 이미영 홍기현	김유석 김태원 백은혜 서민준 이신형 정세은
		파배기 핫도그		1여전도회	13	성옥환 이정님 은영희 이봉순 이준숙 이해숙 최정숙	강선희 장근희 김영조 나경희 권석자 길금옥
		꼬마김밥		2여전도회	10	고유자 원인숙 윤석춘 이해련 최정희	김선미 이해련 이해성 조은화 조정숙
		찹스테이크		3여전도회	12	노미리 박정은 유소자 임연옥 이해경 정채화 주선미	민숙기 박문숙 이숙희 이영숙C 최은실
		떡볶이		4여전도회	17	김경혜 김미선 김상진 김순희 김훈 송정혜 손준웅 유종숙 이유성 이정우 최경희	고경임 고영선 김량은 이영애 정하선 최종희
		국밥 컵라면		5여전도회	15	고선애 김영화 남정임 박성순 이민영 이주영 정애란 차민주	김수향 박소현 양혜림 이미정 이두선 이지연 최선자
		아이스커피		6여전도회	17	박성갑 박주현 유수안 이승연 전소영 최윤정 최현주 현다경	김정연 신정미 여윤정 유은하 이은경 이진 전언경 최영미 최원선
		주방 지원		권사회 외	30	강경희 고명숙 권진영 김선미 김숙자 김영례 김윤수 김재실 남궁옥귀 민연식 박태곤 동현수 신민숙 이미영 이민숙 임미희 조영미 황영균	강정임 김미선 김성수 남정임 박성연B 방혜령 서주원 이성옥 전금단 최은희 한애숙 홍승길
쿠폰판매	김미성	(유료)쿠폰판매 및 마감	전교인	유소년숲 회계	8	김미성 김선화 목기숙 배애리 양윤정 원은영 이해영 정기순	
등록부스	이상훈	등록(무료쿠폰)	미취학 어린이	유아숲임원	4	송성욱 이선옥 조은영	홍이랑
			미취학 어린이	유소년숲임원	6	고상민 김경희 김천식 정유석 조경란 조민호	-
해피존	이상훈	해피권 추첨	미취학 어린이	준비임원	2	김선희 송태헌	-
캐릭터	이상훈	사전홍보(4/19 4/26)	전교인	봉사자	5	(유아숲) 홍민서 정세연 (유소년숲) 김민준 이현준 정대한	-
		당일홍보(5/5)		교역자	3	박정민 윤현섭 정지명	
주차	신호철	주차 안내		주차안내부	4	오상훈 이성호	원종철 안 준
의료	신호철	의료지원		의료봉사회	2	강석구 홍승호	
사무국	신호철	전기/가스 설치, 행사 후 정리, 디자인, 음향	-	사무국	16	김광훈 김정자 박귀례 박현수 서병운 성준용 송용미 신만규 오지연 이영신 윤성태 이중분 임미숙 조희숙 최호성 하태준	
사진	이상훈	행사사진	전교인	사진부	3	박진현 오현준 유미영	
함글함글	어진원	무지개잔치 행복 한 줄 남기기	전교인	함글함글	1	어진원	
비상대기조	신호철	행사지원	-	-	24	고경임 김광일 김낙균 김용규 김은성 박기운 박석진 서정하 손영익 신성철 신형섭 신호철 엄인호 유정식 이현식 임익수 정상기 정준호 조병길 최성이 최영인 최재경 황용환 홍완식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줄 ‘한 사람’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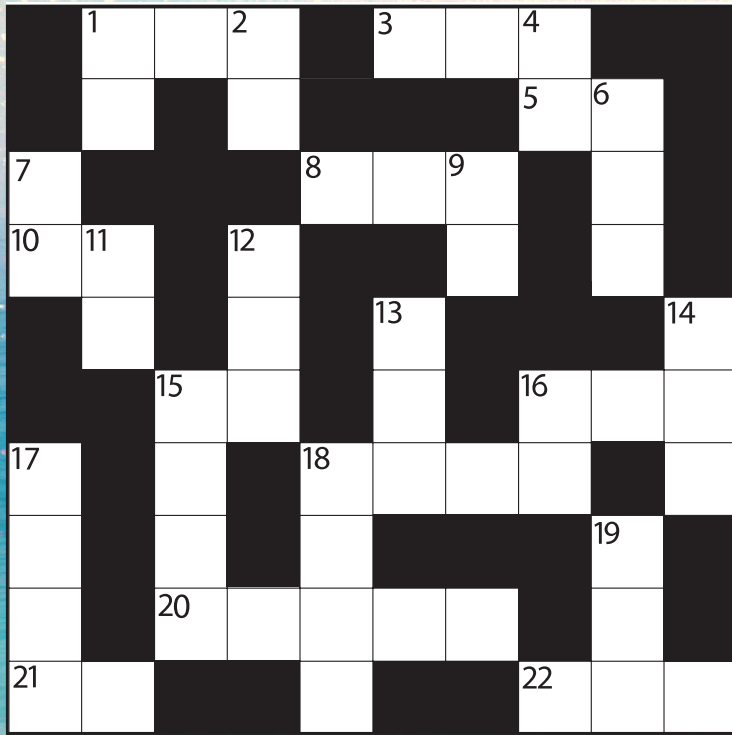
유월의 싱그러움 속에 주님의교회를 향한 성도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에 선 지금, 주님은 여전히 교회 곳곳에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로 동행하며, 형제자매의 걸을 지켜줄 ‘정직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성도님의 소박한 결단은 메마른 여름날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 복된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은사사역부

부서	사역 분야	인원	세부 사항	사전교육 및 연락처
상례부	운전 봉사자	3명 이상	- 장례 예배(위로/입관/천국환송) 운전 봉사 1종보통면허 소지 및 승합차 운행 가능자	- 조용히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따뜻한 마음 - 매번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 봉사자는 많을수록 서로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장 김성배 안수집사 (010-3656-7559)
	위로 동행자	〇〇명	장례의 전 과정 속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배를 섬기며, 슬픔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입니다.	
호스피스부	손뜨개질 봉사자	3명	호스피스 암 환우들을 위한 보온용 털모자 제작	- 손뜨개질 교육 및 재료 지급 - 부장 최영미 집사 (010-4361-0527)
	운전 봉사자	1명	- 샘물호스피스 병원 이동 차량 운행 봉사 (격월 1회) 1종보통면허 소지 및 승합차 운행 경험자	
주방부	새벽 준비팀	1명	오전 6시~8시 재료 준비, 홀 세팅	- 주방 담당 장로, 부장 및 숙련된 사역자가 상세한 설명과 안내와 안전 수칙 교육 - 학생 시절 식당 알바 경험자 대환영 - 부장 유정아 권사 (010-7455-2019)
	마무리 팀	8명	- 대식당, 소식당 의자 정리, 물걸레 청소 - 중정 의자, 파라솔 정리	
주차안내부	2부 08:30 ~ 10:30	2명	교회 안팎의 각 위치에서 주차 안내 및 보행자 안전 유지	- 매뉴얼 및 필요 의류와 장비 지급 - 안전과 위치별 안내 수칙 교육 - 부장 오상훈 안수집사 (010-9075-4305)
	3부 10:30 ~ 12:30	2명		
어와나 트랙 (중등부)	교사 또는 보조교사	3명	- 중고등학생 부모역할을 선행학습하고픈 초등학생 자녀 부모님 - 이제는 철들어서 중고등학교 동생들을 잘 가이드할 맘이 든 청년 선생님 환영합니다. - 담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조교사도 가능합니다.	- 어와나 본부 BT 및 학기 전 트랙 / 저니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신앙교육 역량향상 - 부장 임성훈 안수집사 (010-8885-8257)
어와나 저니 (고등부)				
유년부 ~ 소년부	어린이 예배 반주자	1명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돕고,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실 반주자를 모집니다.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통선대외협력부	우리들학교 운전 봉사자	1명	-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우리들학교 봉사자 이동을 위한 차량 운전 -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10시 출발	부장 윤경자 집사 (010-3050-0155)
사랑나무부	교사	3명	자폐·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교우들의 예배 및 특별활동을 도와주실 분	- 교사들이 사랑나무 예배 및 특별활동에 대하여 사전 교육 - 부장 김기홍 안수집사(010-2779-2466)
전화상담부	봉사부	3명	- 전화 상담 및 75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께 안부 전화 - 상담 교육 이수자 또는 경력자	부장 김숙연 권사 (010-4239-7715)
도서부	4층 도서실 봉사자	1명	매월 2,4주 12:00~16:00	이은희 집사 (010-9197-5696)
		1명	매월 1,3,5주 토요일 10:00~13:00	
의료선교부	의료 선교 봉사자	〇〇명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 해외 의료 봉사 참여 (예, 필리핀)	홍승호 안수집사 (010-5411-1048)
무용부	비전선교 무용부원	0명	몸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역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박설리 권사 (010-7670-6621)
호산나 찬양대	주일 1부 예배 찬양대	〇명	- 모든 파트 - 가장 고요한 시간에 깨어 주님께 첫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 그 복된 자리에 함께할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대장 김성배 집사 (010-3656-7559)
시온찬양대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〇〇명	모든 파트,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실 분	- 지휘자의 상세한 가이드와 예배 전후 연습 - 문의 : 심원일 집사 (010-9005-0112)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빌레몬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여덟 번째 권인 <빌레몬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기 61~63년경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로, 바울의 서신중 가장 짧은 글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516호 디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아버지 중 남자. 작가 김정현이 1996년 발표한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문 1:3)
3. 사도 바울의 동역자.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문 1:1)
5. 사도 바울의 동역자.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으며 바나바의 조카였다. (문 1:24)
8.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 (문 1:17)
10. 어떤 정도보다 많거나 높이. '이하'의 반대말이다. (문 1:16)
15. 거론함. 언급함. (문 1:4)
16. 누구, 또는 무엇인가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건배사로도 흔히 쓰인다. (문 1:22)
18. 앞에 든 이유 때문에. 고로. (문 1:17)
20.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사람. 데살로니가에 살던 마게도냐 사람이었다. (문 1:24)
21. 빠짐 없이. 전부. (문 1:5)
22. 착한 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일을 뜻한다. (문 1:14)

세로 힌트

1. 자식 가운데 남자인 사람. 딸의 반대말. (문 1:10)
2.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바로 그 시간. 시방. (문 1:9)
4. 사도 바울의 동역자. 후에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문 1:24)
6. 어떤 것들 사이의 사이, 또는 중앙. 또는 어떤 것들 중의 하나를 뜻하기도 한다. (문 1:6)
7. 사람이나 생물이 태어나 살아온 햇수. (문 1:9)
9. 스스로의 뜻. 다른 사람에게 의하지 않은 뜻을 말한다. (문 1:14)
11. 서로 갖고 있는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문 1:16)
12.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평온하고 안온함. (문 1:7)
13. 어떤 곳에 잠시 멈추어. (문 1:13)
14.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하여. (문 1:15)
15. 어떤 일이나 현상의 이유가 되어. (문 1:20)
16.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격려하며 위안을 주는 것. (문 1:7)
17. 빌레몬의 종.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문 1:10)
18. '기름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의 말.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다. (문 1:1)
19. 어떤 것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한. (문 1:8)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 야곱

2026년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야곱편”입니다. 올해는 기존과 조금 다르게 아기부와 영아부가 연합으로, 유아부와 유치부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각 연령의 특성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두 부서씩 함께 모여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은 각 부서를 통해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받습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밤이 깊을수록 빛난 주님의 사랑

모두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5월 29일 늦은 밤, 우리 교회 국내선교위원회 기간선교부는 특별한 만남을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노숙인 섬김 단체 '거리의 천사들'과 동역한 이번 사역은 지하철까지 끊긴 차가운 역사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노숙인 이웃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교부원들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위로의 손편지와 간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눈물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화려한 불빛이 꺼진 서울역 거리는 오히려 주님의 세밀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글함글



십자말씀이 516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 6/13-14(토-주일) 사랑나무수련회
- 6/14(주일) 정기당회, 유아숲 성경학교 교사강습회
- 6/21(주일) 통일선교주일, 유소년숲 성경학교 교사강습회
- 6/24(수) 겨자씨인도자교육 1학기 종강, 군선교 수요기도회
- 6/28(주일) 창립기념주일(38주년), 은퇴식
- 6/30(화) 시니어 화요모임 종강 및 발표회
- 7/1(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6교구)
- 7/3-7(금-화) 청년부 비전트립
- 7/4(토) 어와나 1학기 클로징
- 7/4-5(토-주일) 너나들이 여름수련회
- 7/5(주일) 성찬주일

1. 전화상담부 특강

- 일시 6/18(목) 오전10:30
- 장소 제1집회실(5층)
- 주제 경청의 예술, 듣는 마음
- 강사 최진량 전도사(소망교회 상담부)
- 대상 상담부원 및 모든 교인
- 문의 김숙연 권사(010.4239.7715)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